

표준화 및 다기능 단말기의 생성, 이용자의 교육 및 연구인력의 확보

林志盈

(성균관대학교 3학년)



수년 전부터 정보통신이란 용어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통신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본다. 즉 컴퓨터 통신은 그 대상과 주체가 전산기기인 반면, 정보통신은 정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다. 정보를 다루는 것이 전산기기이든 다른 어떤 장비든 간에 이들간의 상호작용에서 정보를 가공 축적하여 전송 등의 일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통신 사업은 주로 컴퓨터 네트웍이나 교환기, 사설 네트웍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러한 네트웍을 통합한 ISDN과 같이 음성서비스와 비음성서비스의 처리를 디

지들로 일원화시켜 여러 독립적인 네트웍을 통합하려고 여러 연구단체나 산업체에서 연구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정보산업에 있어서 그 발전방안을 몇가지 꼽아보면, 첫째가 표준화이다. 표준화란 기종간이나 서로 통신하기 힘든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여 보다 원활한 통신을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다기능 복합 단말기의 생성이다. 이것은 단말기에 전화나 TV같은 주변장치를 접속하는 것으로 외부 인터페이스가 고도로 발달된 단말기의 보급은 다른 주변기와와의 연동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다. 정보통신이 발전하려면 그 이용자의 확충이 절대적이다. 정보통신은 통신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위한 서비스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는 이용자를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연구인력의 확보를 들 수가 있다. 훌륭한 제품은 훌륭한 이론적 근거와 명쾌한 실질적 구현에 의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 안되리라 믿는다. 정보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는 이용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이용자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화사회의 주역은 컴퓨터도 아니고, 교환기도 아닌 바로 이용자들인 것이다.

**정보통신이 발전하려면
그 이용자의 확충이 절대적이다. 정보통신은
통신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위한 서비스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